

으며 東北方 山너머로 百濟古城이 있고 西南으로 公州와 隣接하고 멀리 東穴寺와 對하였다. 第一次調査의 參加者는 李弘植 朴魯春의 兩教授와 鄭永鎬氏, 李在玉氏와 筆者의 五人이며 十月三日의 第二次調査에는 朴日薰氏가 筆者와 同行하였다. 이 三個 石像은 九月二十日 第三九回 國寶古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會에 李弘植委員과 筆者에 의하여 報告되어 國寶로서 決議되었고 十月十九日字로 指定되었다.

(1)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國寶五五二號)

矩形的 四面으로서 四圓柱로서 佛龕形을 이루었다. 上面中央에는 圓形光背內에 阿彌陀三尊과 羅漢 仁王 化佛 등을 左右相稱의 手法으로 彫刻하였으며 光背周邊과 頂上左右에는 飛天和 忍冬紋이 周回하였고 下面에는 獅子蓮花紋이 彫飾되었다. 兩側面에는 上二段으로 各四軀의 樂天座像이 各種樂器를 所持하였고 그 下段에는 龍頭가 前面을 向하였으며 背面은 四段을 이루고 各段 五軀의 座佛을 蓮座上에 安置하였다. 記銘은 前面 下段에 十四行(各行四字) 楷書하였는데 『全氏:』 述況:』 二號·ホ」 同心敬造」 阿彌陀佛」 像觀音大」 世至像·」 道:』 上爲:』 願敬:』 佛像:』 此石佛像」 内外:』 十六:』 라고 一部만이 判讀되었으며 側面에 「癸酉年四月: 号: 道: 敬: 師師乃末: ... 十人知識共國王大·」 「七世父母含靈發願敬造寺知識名記」 (以上 右側인바 左側에도 在銘이나 缺字多數) 등과 背面에는 人名이 座像間地에 記刻되었는데 그中 新羅官等인 乃末 大舍가 보이며 惠明法師 惠信師等 僧俗名도 注目되었다. 石像 下面의 矩形突起로 보아 座台石은 別造되었을 것이다. 現高 四三cm、幅 二六·七cm、側幅 一七cm

(2) 己丑銘阿彌陀如來諸佛菩薩石像(國寶五五三號)

三個石中 最大의 것으로 彫像은 前面뿐이며 그 背面에는 四行의 楷書銘이 있다.

己丑年二月十五日此□七世父母大□□□阿弥陀如來諸佛菩薩像□□□光背形인 前面中央에는 阿彌陀三尊을 비롯하여 羅漢 仁王 等 立像이

蓮花座上에 있고 上面에는 化佛五軀와 그 위에 다시 七軀가 配置되어 있다. 莊嚴으로서는 下面에 欄楯과 層階가 있고 獅子 供養小像 等이 相對하고 있으며 頂上에는 樹葉間에 寶珠羅網이 垂下되었다. (1)보다 年代가 降下되는 것은 銘文뿐 아니라 樣式上에서도 推定되는 바이다. 總高 五七·五cm、下幅 三一·五cm、厚(下端) 八·五cm

(3) 彌勒菩薩半跏石像(國寶五五四號)

T字形으로서 三石中 最小 無銘이나 그 彫法 等에서 (1)과 同時造成으로 推定하고자 한다. 四面中 前面의 龕形에는 方座上에 思惟形菩薩像이 半跏座하였고 上面은 蓮葉莖形의 天蓋를 이루고 있으며 下面에는 香爐를 中心으로 座勢의 供養像이 相對하였다. 兩側面은 梯形을 이루었는데 各一軀의 菩薩立像이 兩手로서 寶珠를 받들고 前面像을 向하였고 그 下面方區에는 供養者가 跪座하였다. 後面은 緩慢한 圓隆曲面을 이루었는데 寶塔 一座를 淺刻하였다. 總高 四一cm、下幅 一五·九cm、側幅(下面) 一三cm、

以上 三石은 모두 軟質의 蠟石種類로서 赤褐色을 보이고 있다. 彫法은 精細하고 諸石像의 莊嚴手法도 華麗하나 形態와 樣式에는 아직 古調를 남기고 있다. 銘文으로 미루어 新羅統一初期의 作品으로 推定되는 바 百濟滅亡後 舊都 公州隣近에 位置하는 이 寺院에 奉安된 作品임에서 當代의 佛敎信仰과 彫像樣式의 一貌와 그 特色을 表示하는 同時에 이같은 四面碑像으로서는 初現의 遺例로서 또 韓國在銘石像의 最古遺品으로서 國內에서 收拾되었음은 多幸한 일이다.

智異山 泉隱寺의 金銅佛龕

鄭 永 鎬

全南 求禮邑에서 約 六m 떨어진 光義面 智異山鬱에 羅代 創建이라고

傳하는 泉隱寺가 있어 佛龕이 保存되고 있음을 알았고 昨年 三月中旬 現品을 調査한 바 있어 寫眞과 圖面으로 간단히 紹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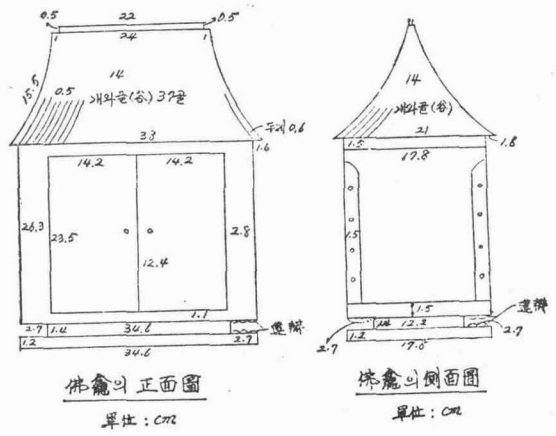
傳來의 經緯는 確實치 않으나 옛부터 極樂寶殿에 安置되었다고 하는 바 調査時에는 僧侶의 反對도 있어 苦難을 느꼈다. 銅製로서 内外를 鍍金하였고 全高 四三·三cm, 幅 三八cm, 側幅 二二cm의 우진각形이다. 瓦葺지붕의 四面은 넓이 〇·六cm의 커마루로 境界를 이루었으며 처마에는는 암막새形으로 銅板을 달았다. 용마루는 圓筒形을 이루고 그 兩에는 구멍이 있어 鴟尾를 달았던 痕跡으로 보였다. 四壁은 모두 表裏



二枚의 銅板을 合板 하여 점으로 못을 쳐서 造立하였는데 前面에는 分閣門을 模한 兩扉가 있고 그 裏面에는 蓮花上에 執劍憤怒形의 仁王立像이 두드러지게 鍍金되었고 表面에는 七寶紋寶相紋이 같은 手法으로 裝飾되었다. 內壁의 三面에도 同一 手法으로 角形高台上의 三尊像을 配置하고 鍍金하였는데 그중 正面만은 三尊以外에 僧形人物의 立像을 配置하여 群像을 이루었으며 兩側壁에는 華麗한 花

文이 下部에 裝飾되어 있다.

天井에는 全面에 寶相花文을 새겼고 그 中央에 多瓣稜形(縱一八cm, 橫一〇cm)을 凹刻하여 그 안에 寶相花文과 天部像을 새겼다. 內部下底에는 文樣이 없고 그 周圍를 覆蓮으로 둘러 壁과 境界를 表示하였으며 밑에 깔린 黃絹 방석에는 三尊佛像을 安置하였던 자리가 남아 있으나 그 存否를 알 수는 없었다. 前面 左右柱에는 唐草文을 台座와 接續하는 곳에는 上으로 仰覆蓮을 그 中間面에는 唐草文帶를 各各 浮刻하였다. 台座下底部에는 矩形으로 홈을 내어 銅合板으로 堅固하게 製作되어 있다. 지붕을 除外한 他部分의 渡金은 正面과 內部만을 남기고 顏色하였다. 佛菩薩의 配置와 樣式 또는 裝飾紋이나 現存하는 類品(例如 德壽宮美術館 所藏品)과의 比較에서 高麗作으로 推定되었다. 大型의 稀品. 로서 山寺에 放置되고 있는 바 當局의 保護策과 再次的 調査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龍形紋圓盤石의 二例

洪 思 俊

動亂中 一九五一年 四月頃 扶餘邑官北里 扶蘇山南麓인 益生病院 後塙에서 出土되어 李德熙院長이 分館에 寄贈한 것이다. 厚 三cm의 花崗石圓盤으로서 徑二四·七cm인 바 表面에만 雙頭單身의 龍形文을 둥글